

#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 서울에 착륙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3가지 테마존 구성  
11~18일 더현대 서울서 체험 프로 '다채'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가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란 슬로건으로 단순 전시를 넘어 실제 체험형 콘텐츠와 몰입형 공간 연출을 결합한 '도심형 우주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특히, 백화점 공간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우주항공축제 팝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축제 홍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최고 우주

기관과 협업해 지구 문명존, 우주 문명존, 우주인 카니발존 등 3가지 테마존으로 구성해 압도적 몰입형 체험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문명존에서는 누리호 발사체 축소 모형, 대한민국 발사체 발전 과정 등을 전시한다.

또한 고흥능 전체망원경 관측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봇(스파이더 로버) 체험존이 마련돼 '우주 진입 전 단계'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우주 문명존'은 화성 환경을 재현한 공간이다. 붉은 토양과 암석, 특수 조명을 활용해 실제 화성과 유사한 분위기를 구현하며, 귀환선 및 우주탐사 로버 모형을 배치해 미래 우주탐사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장 활기찬 공간인 '우주인 카니발존'에서는 우주복 착용 체험과 외계인 게임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또한 '누리호 발사장 견학' 예약 접수대를 운영해, 현장에서 실제 고흥 방문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팝업 경험이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관광 모델을 구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더현대 서울 팝업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 모델이다"며 "서울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고흥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 “여수거북선축제서 이순신 장군 호국정신 느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여수의 대표 문화행사가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찾아온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열린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가 주관한 여수거북선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올해 주제는 '우리는 오늘 이순신이다'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여수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풀어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제영길놀이, 이



내달 1~3일 이순신광장서 해상불꽃쇼 등 콘텐츠 다채 지역 정체성 문화로 풀어내

인 공연, 청년 버스킹, 여수 특산물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기간 25만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안전요원 확대 배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동술 추진위원장은 “여수거북선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여수의 호국문화를 알리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여수의 매력과 감동을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장흥,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30만원

장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 내에서 거래금액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2년 이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완료한 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단,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은 사용할 수 없어 일반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에도 제출하면, 도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311@gwangnam.co.kr



순천문화재단은 11일 오후 7시 신대천 뽕나무 아래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간 감성 공연 '신대천, 윤슬 세레나데'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신대천, 윤슬소나타' 공연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 순천 신대천 야간 풍경 속 '힐링 공연'

내일 오후 7시 '야고라 순천' 공연팀 참여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 공연은 지난주 '윤슬 소나타'에 이어 공간 신대천 야간 풍경 속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문화재단은 11일 오후 7시 신대천 뽕나무 아래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간 감성 공연 '신대천, 윤슬 세레나데'를 진행한다. 순천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은 지난주 '윤슬 소나타'에 이어 두 번째 윤슬 시리즈로, 신대천의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감성과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슬 세레나데는 '반짝이는 물결 위로 흐르는 따뜻한 선율'이란 주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춰, 함께 듣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무대에는 야고라 순천 공연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색소폰니스트 오진용을 비롯해 앙상블 힐러스, 테너 김병연, 소노 앙상블, 리빙스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풍성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상생 '효과'



신선 농산물 공급·판로 확대

현재 매장에서는 총 88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양파·오이·파프리카·토마토·딸기·천혜향·키위·썬채소·두름 등 제철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김·미역·다시마·전복·새대 등 지역 해산물도 함께 선보이며, 꿀,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 및 특산품도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개장 초기임에도 방문객이 꾸준히 유입되며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 농가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군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 곡성,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주)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 활성화 업무협약

곡성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에 나섰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햇빛과 바람 등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곡성군과 루트에너지는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수립, 마을 협동조합 운영, 정부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루트에너지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협동조합 운영과 이익공유 구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마을 대상 사전 수요 조사와 컨설팅 신청 접수 등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곡성군 관계자는 “햇빛과 바람은 곡성군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며 “이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곡성군의 햇빛·바람소득마을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선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며 “루트에너지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자생력이 높아지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민 기자 hnews1@gwangnam.co.kr

## 보성,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

보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인 아닌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다.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총 9774명에게 약 58억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보성=박형석 기자 eco@gjdream.com